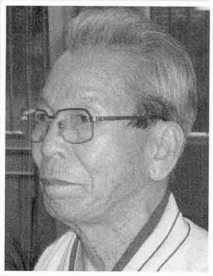
민통련을 회상하며

민통련을 되돌아보며



전 민통련 중앙위 의장 강희남

1920년생, 목사, 전민련 고문, 법민련 남측 본부 의장,
전북 익산 고백교회

우리가 오늘날 민통련 기념 사업이라 한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취지에 퍽 어긋나기도 하지만, 기념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승이라는 말과 기념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계승 사업이라면 환영한다.
왜냐하면 기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완성되고
새로운 시대 즉 epoch의 개념이고 digital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가지라도 완성된 후에
기념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계승이라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계승은 진행형이다.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으니 진행중이어야 한다.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analog)라는 말이다.

서양사람들의 격언에 turn a person around one's finger 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을 갖이고 논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임자를 잘못 만났는 말을 한다. 이러한 말들이 바로 우히 민족 현대 대외관계의 단면도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다.

우리 남쪽에서는 45년 8.15를 해방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은 2차 대전의 과정에서 또는 종전후 어느 모로 보나 성격적으로 또는 실적으로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결코 전패족(戰敗族)이 아니고 전승족(戰勝族)의 대열에 들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임자를 잘못 만났다. 아메리카 제국주의자들은 종전을 계기로 해서 외교적으로 보아 제멋대로 승자의 칼자루를 쥐고 내둘렀던 것이다. 우리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땅에 38선을 그어 두동강 냈던 것이 누구인가?

종전후 세계질서 재편성 정책의 일환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을 주요국가(major state)로 재생시키기 위해 상징적으로 도죠 수상 한사람만을 처단하고 천왕이하 모두를 온존시켰고 이 땅에서는 8.15 직후 여운형의 인민 공화국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사회주의 선호를 과시하게 되니 제국주의 군대들이 점령군의 자세로 들어와 민족주의 세력들을 깡그리 짓밟아 버리고 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소위 군정자문위원회 10인 중 8인이 친일파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따라서 골방에서 떨고 있던 친일 부역자들이 대거 군정때 등용되니 어제날의 매국노나 하루아침에 반공 애국자로 둔갑했던 것이니 이것이 앞서 말한 일본 주요국가 재생 정책과 맥이 통하는 일이었다.

우리 조상 선열들이 피로 지키고 눈물로 가꾸어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준 이 터전을 오늘날 우리가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가? 저 양키 제국주의자들에게 주권을 전당잡히고 있는 우리 남쪽에 자주가 어데(어디) 있으며 대통령이 어디 있는가? 우리 조상들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계시는 것을 어찌 몰으(모르)는가?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이 땅에 무엇 하나 제 코스로 가는 것이 있겠는가? 실로 정권은 존재하나 정치는 부재의 현상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괴물이 나타났으니 전두환이라는 현대판 Procrustes가 우리 력사의 무대에 나불거렸던 것이다. 그의 쇠침대는 Procrustes의 것 이상으로 2천명 사람들의 키를 재어 자르거나 늘려서 죽였으니 광주와 전두환과의 관계는 피노체트와 칠레와의 관계에나 비교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나대로의 철학 한토막을 말하겠다. 혁명이나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의 관념(idea)은 자기를 실천해서 현실로 태어나게 할 사람을 기다려 그 땅의 허공을 맴돌고 있다가 인물이 나타나 자기가 볼때 이 사람이다 싶으면 하강해서 그 사람의 뇌 속에 들어가 정의와 혁명의 투사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력사 속에 신군부라는 전두환 군화발 세력이 다시 등장하자 83년에 민청협, 민민협 그리고 민주통일련합 등 여러 민중운동 단체들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나는 어느 수련회에서 고인이 된 문익환 목사를 맞(만)났다. 그가 말하기를 새로운 운동단체 하나를 만들자는 것이다. 속담에 빚내 굿이야 하면 맏며느리가 춤춘다는 격으로 나는 아무 힘도 없으면서 즉각 찬동했던 것이다. 이것이 아마 85년 2월쯤이었을 것이다. 그 후에 고인인 된 윤반웅 목사, 유운필 목사, 이두수 목사, 계훈제 등의 동의를 얻어 그 해 3월에 창립된 것이 민주통일민중운동련합(민통련)이다. 당시에 25개의 기존 운동단체들이 모두 연합체로 가입했으니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의 단체이었다. 문익환 목사가 의장을 맡고 전 의원 이창복 선생이 사무총장(총무)을 맡고 나는 처음에 중앙위원회 의장 나중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라 했으나 실상 사람이 못나서 돈도 못내고 그저 몸으로 때우는 정도이었다. 서울 다니는 차비도 걱정될 정도(지금도 그렇고)이었으니 말 다했다.

저 전두환 군사 폭력배들의 탄압이야 불문가지다. 소위 사무실폐쇄령이라는 것이 날아오는가 하면 사무실 압수수색 강제폐쇄 등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여기저기 전전하던 일 등 기억조차 희미하다. 나는 딱히 대의원 총회 의장의 자격이라기 보다는 전북지역 민주인사로서 전북대학 학생회 초청 강연이 문제되어 전주형무소에 구속된 것이 86년 5월로 기억된다. 7개년 선고를 받고 있던 중 87년 4월에 소위 전두환의 4.13 조치라는 것이 불거졌다. 7개년 동안 도둑질 해먹고 계속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분개하기도 했다. 그 안에서 투쟁하는 방법이라야 단식 밖에 없다. 나는 어찌 한단 말인가? 약한 몸으로 단식을 시작하면 15개일이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이다.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10개일 되어 4월 24일이 밝았다. 나는 결심했다. 65세 살았으면 되었다. 죽자! 이것이었다. 그리고 서원의 기도를 들였다. "하느님이여 제가 이 감방으로 하여금 민주산실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의 밀알로 땅에 들어가 썩어지겠습니다."라고. 나는 그날 용기를 내어 단식을 선언했다. 호헌철폐 단식투쟁이라고. 그리고 가족이 면회를 왔다. 저간의 사정을

말하고 단식 결행을 전했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 안에서 흔히 학생들이 단식투쟁을 시작했다가 이른바 강제 급식을 당했다는 이약이(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젊은 사람도 아닌 내가 만약 그렇게 되면 큰 일이다. 몇날이 지나서 보안과장이 오는 것 같았다. 나는 허장성세도 없는 기마이를 썼다. "만약 누가 강제 급식 차비를 하고 내 방에 들어 오기만 하면 내가 이 벽에 3번만 대가리를 치면 끝난다." 사람은 기로 사는 법이다. 그러나 실상은 건기마이다. 그러나 저들이 보기에는 건기마이도 보이지 않했을런지도 모를 일이다. 강제급식 정도의 날짜는 지났다. 안심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15개일이 지나도 운동시간에 밖에 나가 천천히 걸을 정도이었다. 옆에 사람들이 말한다. "이것이 목사님의 정신때문입니다."라는 것이다. 한 번은 의무과에서 까운입고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장기수 최규식씨가 찾아왔다. "목사님의 단식 경과에 대해서 아메리카 대사관에서 날마다 전화로 건강 체크를 해갑니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용기를 얻었다.

단식을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서 신부들과 신교 사역자들이 지원 단식한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김대중, 김영삼 등이 국회의원들을 보내어 면회를 요청했으나 때마다 거절당하니 마침 장기욱 의원이 변호사의 자격으로 면회를 할 정도이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내 제자 두사람이 부장으로 있었다. 단식 37개일이 되니 그들이 신문을 들고 왔다. 보이면서 "선생님 이제는 단식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단식에 대해 경향 각 신문에 5단 기사로 났습니다. 이것은 전두환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두환이 건재 한다면 이렇게 크게 보도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법하다. 그래서 나는 그러나 그렇다면 예수도 40개일 동안 단식을 했다 하니 나도 40개일로 끝내겠다. 라고 일어 보내고 그렇게 끝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으니 박종철, 리한렬 피살 사건으로 서울이 들끓른다는 것이다. 이윽고 6월 항쟁이 일어나고 소위 "6.29"선언이 나오고 나는 7월25일에 출옥했다.

그러다가 87년 대선을 기해서 우리 민통련이 이른바 어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지지라는 것을 결의했는데 나는 그 회의때 참석지 못했던 것이다. 후에 올라가 나는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말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 특정인에 대해 퍽 좋게 아는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통련으로서는 어느 당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원칙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부 이탈하는 동지들도 있었다. 그리하여 힘을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민통련의 발전적 해체론을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문익환 의장이나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명분임을 지론으로 삼았다. 마침내는 해체의 명분이 서게 된 것이다. 해체하고 더 넓은 단체로 탈바꿈하자는 데 뜻을 모아 마침내 89년 1월 29일 오전에 향린교회당 아래층에서 화기애애하게 해체식을 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연세대 대강당에서 력사적 event가 나타났던 것이다. 나는 내심 얼마나 모여질 것인가 념려했다. 그런데 그것은 기우이었다. 나는 그날 다시 한번 우리 민족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 큰 강당에 립추의 여지가 없었다. 약 2천명으로 추산되었다. 너무도 기뻤다. 오직하면 나는 그날 대중앞에서 "예수나 석가 탄생일만 성탄일이냐? 우리 민족 통일의 옥동자가 태어나는 오늘이 성탄절이 아니냐?" 나의 1평생 처음되는 기쁨의 절규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전민련이 탄생되었고 세대교체가 되어 나와 많은 사람들은 고문등 2선으로 물러나고 장년층으로 완전히 지도부가 바뀐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가 오늘날 민통련 기념 사업이라 한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취지에 퍽 어긋나기도 하지만, 기념이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계승이라는 말과 기념이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계승 사업이라면 환영한다. 왜냐하면 기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완성되고 새로운 시대 즉 epoch의 개념이고 digital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가지라도 완성된 후에 기념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국가보안법 문제만 가지고 보아도 그렇다. 이 민족 례속체제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 보안법은 간접적으로 례속과 불연속선의 선이 닿아 있는 것이다. 보수 반동주의자들의 작태를 보라. 구더기는 똥통속이 락천지라 한다.

그럼으로 우리는 계승이라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계승은 진행형이다.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으니 진행중이어야 한다.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analog)라는 말이다.

우리 나라 리조 중기에 홍춘경이라는 문신이요 지사가 있었다. 그가 부여 락화암에 가서 읊은 시가 있는데 끝부분만 소개하겠다. "락화암반 화유재 (落花岩畔 花猶在)" 락화암 언덕에 아직도 꽃이 피어 있음은 "풍우당년 미진취(風雨當年 未盡吹)"라 백제가 망할 그 당시의 불던 풍우가 아직도 다하지 못함이라. 백제 망한 그 원한의 비바람이 아직도 불고 있다는 뜻이다. 진행형이라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국 력사에서 징사(徵士)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제왕이 백성들 중에서 현량한 선비를 불러들인다는 말이다. 한고조 유방이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황제위에 올라 새로운 epoch의 세계를 열어보겠다고 국내에 현량한 선비들을 불렀다. 이에 많은 선비들이 때를 만났다해서 몰려들었던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로(魯)나라의 선비 두사람은 그 징사(徵士)의 불음에 응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라의 례의(禮儀)를 차릴랴면 적어도 100년의 세월이 지나야 하는데 지금에 전쟁으로 몸을 상한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으며 전화를 입은 백성들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죽은 시체들 장사도 못 지내고 들에 누워있어 아직도 그 살벌함이 남아 있는데 무슨 새 례의 같은 것을 말할 때인가?" 하며 유방의 사신을 나무라고 응하지 않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 참고가 될 만한 이약이이다. 우리는 베트남 민중들의 철저한 민족주의를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